

전남 서부권

목포항 방치 폐선박 골치

수질 오염·미관 훼손...목포항만청 29일까지 집중 점검



20일 해남군 사회단체협의회 창립 출범식에서 주민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해남 발전 디딤돌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협 출범

해남군 사회단체협의회 창립 출범식이 20일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날 창립 출범식에는 박철환 군수와 이종복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관내 34개 사회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초대 회장을 맡은 김광호(해남군 번영회장)회장은 “살기좋은 고장으로

명성을 얻던 해남의 현재 모습은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해남 군민이 머리를 맞대고 해남군의 발전적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해남 발전의 초석이 되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남군 사회단체협의회와의 정책적 대안을 반대하는 주민들과도 대화를 통해 풀이 같겠으나, 군민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목포 항만내와 인근 해안가에 폐선박들이 무단방치돼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20일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에 따르면 현재 관내 방치된 폐선박은 20여척에 달한다. 이들 폐선박들은 담보설정이 됐거나, 폐기시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이토크 무단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르면 1년이상 선박을 무단방치해 해양을 오염시키거나, 공유수면 사용지해 요소가 될 경우 이선박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목포 항만청은 심각한 해양수질 오염 유발은 물론 항만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폐선박

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목포 해양경찰서, 목포시 및 영암군, 어촌계 등과 공조해 목포 항만내와 주변 바닷가 등 무단 방치 폐선박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무단 방치 폐선박에 대해서는 폐선박 이력·관리카드를 작성 유지하는 한편 소유자 파악 추적 등 체계적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수질오염 유발 및 항만 미관을 저해해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폐선박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폐선박은 자진 제거와 이동 조치를 하게 된다. 하지만 담보 설정된 폐선에 대해서

는 사유 재산권이 있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 항만청은 지난해 목포항 주변에 무단 방치된 폐선박 16척을 직권(6척)과 자진(10척)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올해도 무단 방치된 폐선박이 발생한 것은 고유가와 어업부진, 경제 불황 등에 따른 담보설정을 해지 못하거나 폐선시 비용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목포항만청 김옥주 계장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이번 폐선박에 대해서 완전 제거하겠다”며 “앞으로 무단 폐선박 방치시 관련법을 적용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깨끗한 해양환경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기자노트

요즘 목포시 청사에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때아닌 부채가 책상마다 놓여 있고 부채를 부치는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시는 20일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직 직원들에게 부채 1500개를 배부했다. 한마디로

이삭 줍듯 전기 줍는 목포시

목포시의 에너지 절약운동은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을 떠오르게 한다. 시는 우선 복도·화장실·사무실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전등 1500여개를 소등 조치하고, 사무실 점·소등 스위치 결선 변경을 통해 야간이나 휴일 근무시 근무자 책임만 점등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전원을 꺼도 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흐르는 미세전기를 잡기 위한 사무실 대기전력 차단 분전반을 설치했다. 구내매점·지하 주차장 등은 LED 조명으로, 복도·지하층에는 인체감지 센서 등이 등장했다.



임영준 <서부취재본부>

이 같은 노력의 산물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이삭을 줍듯이 낭비 전력을 쯤썰겠다는 목포시. 갈채를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무리 절전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목포시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민간부문에 확대시키는 게 최우선이다. 이제는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때다. 생존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의 유일한 해법은 절약뿐이기 때문이다. /lyc@kwangju.co.kr

신나는 여름속으로 풍덩~

함평 돌머리 해변 28일 개장

함평 돌머리 해변이 오는 8월 19일 까지 53일간 운영된다. 함평군은 오는 28일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변 수상무대에서 개장식을 갖는다. 군은 인공플장의 모래를 바꾸고 샤워장과 원두막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종합안내소 옆에 가로 5m·세로 5m 규모의 어린이 전용 플장을 설치해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한창이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인공플장과 숲 사이에 원두막 14동과 텐트촌 20동을 정비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장 기간 중에는 뽕자이 잡기·개막이·바지락 캐기·갯벌 생태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천연갯벌과 아름다운 낙조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돌머리 해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백순희기자 dia@



지난해 함평 돌머리 해변에서 갯벌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함평군 제공>

진도 백야도서 멸종위기종 관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무인도에서 올빼미 등 다수의 야생동물이 관찰됐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박응규)는 무인도인 진도군 조도면 백야도에 ‘인공 샘’(pond)을 조

성하고 적외선 무인센서 카메라를 통해 5월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2급) 올빼미 등 조류 5종과 설치류 1종, 포유류 1종이 ‘인공 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취재본부=조원범기자 wncho@

송동·금지·주생지구 침수걱정 끝

남원시 5년간 120억 투입 배수개선

남원시 송동·금지·주생 지구가 수십 침수지역 오명을 벗게 됐다. 남원시는 국비 120억원을 확보하고 송동면(송내·사촌·신평·두신·흑송리), 금지면(웅정·입암·창산리), 주생면(지당·제천리)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경지 침수방지 수해면적은 187ha로 ▲배수로 11km ▲배수문 2개소

▲북도 39ha를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송동·금지·주생 지구는 매년 하우스·축사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 집단 민원이 제기돼 왔다. 남원시는 기후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침수방지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추진했다. /전북취재본부=백순희기자 bs8787@

“친구와 걷는 한옥마을 좋아”

전주시 관광객 설문 ...75%가 20~30대·여성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주를 찾는 체류형 개별여행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전주대 문화관광연구소에 의뢰해 3월 말부터 4월까지 전주를 찾은 관광객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30대의 젊은층이 74.6%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72.4%로 압도적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55명(49.2%), 30대가 80명(25.4%)을 차지했다. 관광객들 가운데 48.3%(152명)는 이어 가족 43명(13.7%), 나 홀로 42명(13.3%) 등 75.3%가 개별 여행객

으로 전주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명(2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인천 71명(22.5%), 충남·대전 43명(13.7%), 전남·광주 37명(11.7%), 제주·강원 이 각각 4명(1.3%) 순으로 서울·수도권지역의 방문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방문 목적은 55.6%가 ‘전주 한옥마을 여행’이라고 답했으며 미식 관광(12.7%),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8.3%)라고 응답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32.4%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철도 이용객은 22.9%를 차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가 전체 55.3%로, 27.6%를 차지한 자가용 이용객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KTX 개통 이후 열차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시 관광마케팅 관계자는 “전주를 찾는 젊은 개별여행객이 늘어난 만큼 도보형 도시관광 메카로, 국내외 개별여행객의 목적지로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복분자 간·신진대사에 도움”

고창복분자연구소 심포지엄

(제)고창 복분자 연구소와 한국식품과학회는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복분자의 효능 및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복분자 관련 산학연 관계자와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분자의 기능성과 효과에 대해 학술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첫 발표자로 나선 캐나다 태평양 농업 및 농식품 연구센터 소속 마이클 도셋트(Michael Dossett) 박사는 복분자의 식물성·기능성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또 농촌진흥청 조수목 박사는 복분자의 기능성과 관련해 ‘대사연구에 의한 복분자의 건강기능성 효과’를 발표했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영익 박사는 ‘복분자의 간 보호기능과 성분’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전북취재본부=백순희기자 dia@

환경공단-조선이공대 지식나눔 협약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처장 임재욱)는 최근 공단 소회의실에서 조선이공대 산학협력단(단장 민완기)과 지식나눔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기적인 상호 협력하여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지식나눔을 실천키로 했다. 학생들에게는 캠퍼스에서 취득한

지식을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환경전문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환경관련 협의회 구성 ▲폐기물 전 분야에 걸친 정보교환 ▲지식정보제공 등에 따른 자료 공동이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순희기자 bs8787@



최근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젊은이들이 고풍스런 한옥을 둘러보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의 전통문화 유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어 지난 2010년 11월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단신

남원시 지방세 실적 평가 ‘최우수’

남원시는 최근 전북도 주관의 201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발돼 사상유례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시는 그동안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 채권압류, 변호사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해 징수율이 전년 동기대비 12%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체납을 강력 징수하고, 지방세 징수를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순희기자 bs8787@

김제시-코레온 중자산업 동반 성장 협약

김제시는 20일 시청에서 국내 3위 중자기업인 (주)코레온(대표 양동원)과 중자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골자는 ▲지역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재충단지 조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 ▲신품종에 대한 지

역특화 작목 육성 및 관로 확보 협력 등이다. (주)코레온은 지난해 12월 육종연구실과 비닐하우스 7동을 설치했다. 오는 2015년까지 수박·배추·오이 등 채소종자 중심의 육종 연구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성기자 hnews@

정읍 택시기사들 관광 가이드 나선다

정읍지역 택시기사들이 관광 가이드로 나선다. 정읍시는 20일까지 관내 택시기사(법인택시 290명·개인택시 375명)를 대상으로 100명을 모집해 일정 교육(4일 28시간)을 거쳐 정읍 문화·역사·관광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맛집까

지 소개해주는 ‘달리는 관광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관광가이드로 선발된 택시기사에게 인증서와 유니폼을 제공하고, 관계기관 등에 업무용 택시 이용시 우선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문의(063-539-5914)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변산반도 해수욕장 일제 개장

변산과 격포, 모항, 고사포 해수욕장 등 변산반도 해수욕장이 전년도에 비해 한 달 이상 빠른 최근 조기개장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개장 첫날에 4만여명의 피서인파가 변산반도를 찾아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

를 식혔다. 김호수 군수는 변산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없기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